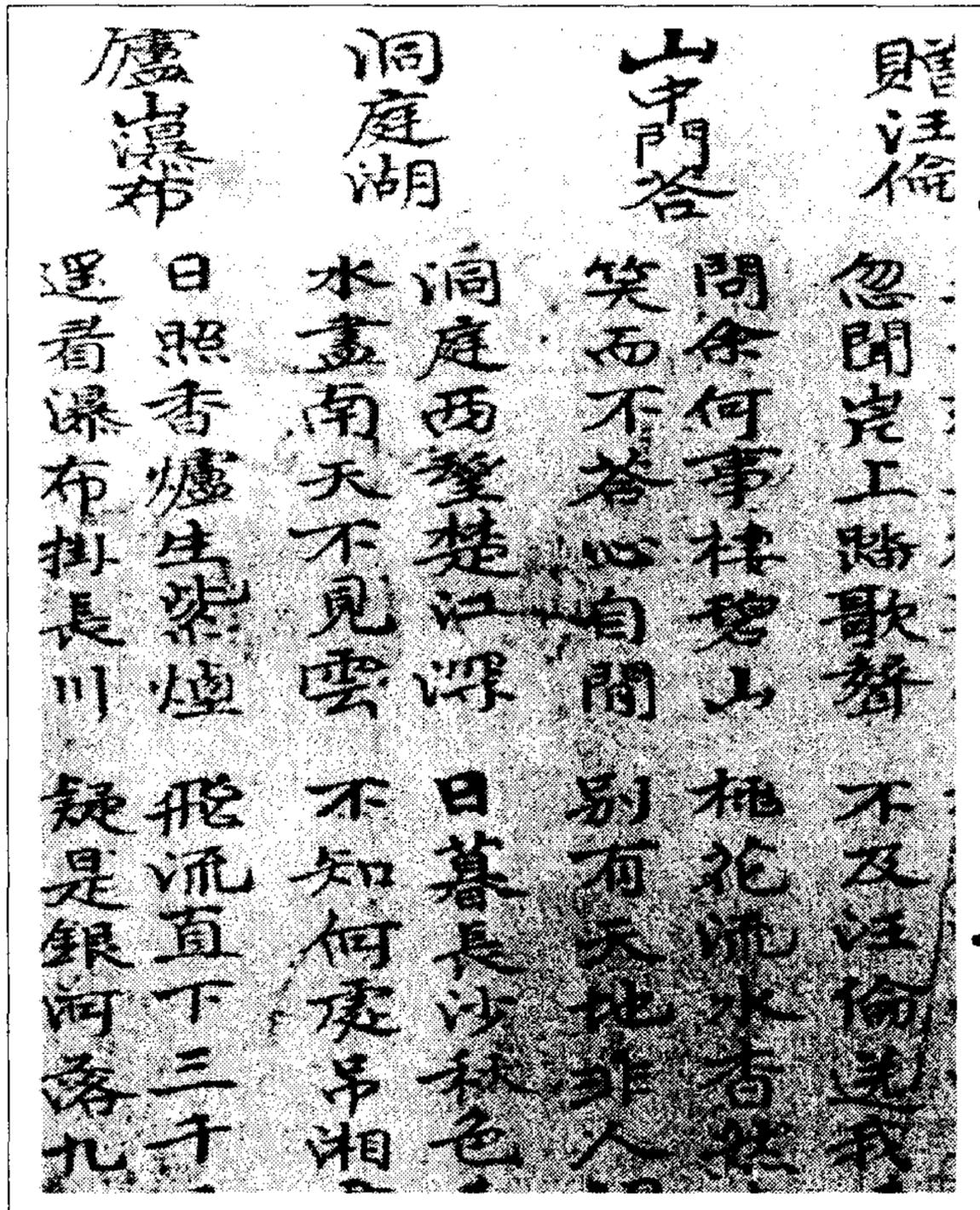


7. 385  
91-58  
381호

— 「향토문화 인물」 청소년 교재 —

# 한국여인의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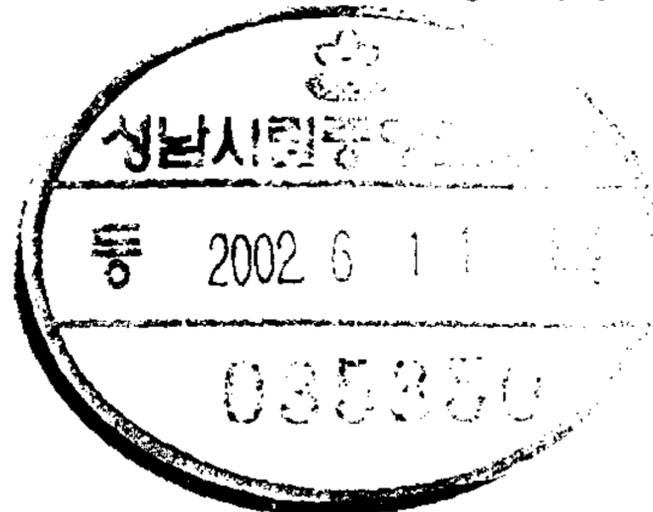
여류문인 **강 정일당**



강 정일당(1772~1832)의 시(詩) 원문



韓春燮(藏書)



〈머리말〉

「향토문화 인물」 청소년 교재  
「한국여인의 표상 여류 문인 강정일당」을 발간하며



성남 문화원장 오 세 순

사람이 태어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한다.

그 첫번째 사람이 부모다. 과연 부모를 잘못 만나서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두 번째 사람이 스승이다. 비록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어도 스승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 세번째 사람이 바로 친구다.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고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도 친구를 잘 만나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 이 세 사람은 모두 서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훌륭한 부모는 스승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친구 역할도 할 수 있을 때 훌륭한 부모일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은 부모 역할과 친구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훌륭한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훌륭한 친구가 되려면 부모나 스승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남 문화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향토문화인물」 청소년교재 「**한국여인의 표상, 여류 문인 강정일당**」”을 발간하는 것은 강정일당이 우리 국민에게 위대한 어머니일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일 수 있으며 우리들 삶의 참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남 사람들은 거칠고 범죄가 많은 도시라고 하여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일들도 있었다.

거칠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없다는 말은 정신적 버팀목이 없다는 말이다. 정신적으로 위대한 스승이 있어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다면 말씨나 행동이 거칠어 질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일당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어머니였고 위대한 아내였고 위대한 스승으로서 우리들에게 참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였다.

이제 성남 시민들에게 훌륭한 정신적 지주를 세워 주어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이땅을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한 이 나라의 역군으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손질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강정일당의 효행과 부덕에 관한 연구는 성남문화원의 중심사업의 하나로 강정일당 효부상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성남문화교실의 예덕관을 설립하여 성남을 외형만 갖춘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남에 사는 청소년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물리치고 이 한권의 책을 청소년 교재로 발간하는 것이다.

「효행은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다. 아무쪼록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뜨거운 마음이 후대까지 계승되기 만을 바란다.

## 우리는 왜 강정일당을 기리고 배워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선조들이 살아 온 것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수이 여기기까지 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현대 과학문명에 뒤떨어지고, 그 원인을 밝히는 중에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 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터였다.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서양의 교육제도와 서양의 사상과 서양의 과학, 서양의 실리적인 생각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에 우리가 본 선진국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선진국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받아 들였고 맹종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한술 더 떠서 그들보다 더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금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핵가족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사실 서양의 중간이상의 사회를 들여다 보면 부모 자식간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돈독하고 이웃간이 우리보다 더 화목하고 더 친절하고 더 깍듯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그러한 예절과

질서를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는 발전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던 도덕적인 질서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는 발전만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최고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양동방예의지국 운운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의 중류 이상의 사회를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하류 사회를 표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마치 인륜 도덕조차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까지도 외면하고 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일 수록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기 보다 부모가 자식을 모셔야 함께 살아주는 기현상이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까지 되었다.

이런 사회가 되다보니 핵가족인 부부간에도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마음대로 이혼하고 별거하고 헤어지고 자식까지도 내버려 우리 사회에는 고아 아닌 고아가 급증하게 되어 세계 최고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기 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록 더 극명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허전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왜 우리사회는 이렇게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으며, 왜 우리사회엔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는 왜 거짓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일까 등 우리들 개인에서부터 가족,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오늘에 있어 우리들의 어떤 점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

역사 예언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21세기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 고 했을 때나 일본 동해대학교 교수 사세휘(射世輝)박사가 「21세기는 이렇게 된다.」에서 “서기 2010년에는 한국이 세계를 앞지른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사의 최고봉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그 이유로 “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래 세계는 가족 중심의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첨단 과학시대다. 첨단 과학시대에 사람들은 완전한 이기주의 완전한 개인주의에 이르게 되어 국가의 가치도 잊게되고 민족의 개념도 없어지게 된다. 벌써 세계가 하나의 상권이 되어 국산품 애용으로 애국 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때에 이르렀고 나만 좋으면 그것이 어느 나라 것이고 상관없다는 소위 다국적 시대에 이른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나라의 가치도, 민족의 가치도 상당부분 잃어버렸고, 사회의 공동 의미같은 것을 많이 잃은 상태다.

그런 시대에 가족의 의미를 갖고 민족과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이 건강해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 하므로써 그들의 가정이 건강할수 있다. 가정의 건강이 바로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민족의 장래를 보장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인 예절이라든지 경로사상, 부모섬기는 예의 도덕 등이 모조리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전통예절을 존중하고 그대로 지키는 데에 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21세기에 세계의 중심국가 가 될 수 있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민족이 될 수 있다.

강정일당은 우리가 잃어버린 효도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우리가 잃어버린 참 아내의 도리를 일깨우고 참 한국인의 어머니상을 가르쳐 준다. 더구나 강정일당에 관한 가르침이 성남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 학생들의 가정을 조사해보면 약10%의 학생들이 결손 가정에 속한다. 부모 중 한분이 없거나, 이혼하여 따로 살거

나 하는 아이들이다. 이러한 통계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여 성남시를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된 도시로 일컫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오늘의 현대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대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 돌아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를 지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아들은 아들의 위치로 며느리는 며느리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남시에서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제1호로 강정일당의 사적과 묘소를 지정한 것도 호도 정신을 높이 여겨 시민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치려 함이었다.

강정일당이 성남시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1982년 강주진(姜周鎭) 박사가 국역본 「정일당 유고집」(靜一堂 遺稿集)을 출판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성남문화원장인 조명천(趙命天)씨가 강정일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조시인 한춘섭(韓春燮) 선생이 「여류문사, 강정일당」이란 논문을 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사후 154년만인 1986년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강정일당에 대해 동아출판사 간행 「동아원색 세계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정일당 강씨(1772-1832 · 영조 48-순조 32) 조선시대 여류시인, 서화가, 호 정일당(靜一堂). 본관 진주, 윤광연(尹光演)의 처, 시문 서화에 능하고 성리학 경술에도 밝았다. 글씨는 황운조(黃運祚)의 필법을 이어받아 해서(楷書)를 잘 썼고 시에는 도가의 기풍이 담겨져 있다. 시 작품으로 야좌(夜坐), 제석감음(除夕感吟), 청추선(聽秋蟬), 경차존지일당운(敬次尊 只一堂韻)등 31수가 전한다. 저서로는 「정일당 유고(靜一堂 遺稿)」가 있다. ”

이밖에 정일당에 관한 기록으로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1981년도 발행 「문예연감」에 보면 1772년에 출생한 문화예술인 8명이 게재되어 있는데 정일당 강씨는 그중에 두 번째로 올라 있다. 강정일당이 그리 오래전 인물이 아닌데 비하여 강씨 문중 몇 사람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고,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산 것에 비하여 학계에서 연구하고, 교육계에서 국민 교육용 자료로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강정일당은 가난한 집안의 외동 딸로 태어나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시부모를 모심에도 시어머니와 시문으로 화답할 정도로 가까웁게 공경하였으며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모범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 지아비의 아내로서 여섯 살 연하인 남편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 당대

의 손꼽히는 훌륭한 선비로 가꾸어 낸 훌륭한 아내였다.

뿐만아니라 어머니로서 아홉 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잃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고통과 좌절을 맛본 수난의 상징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큰 변화의 시대며 불확실성의 시대다. 심지어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려고도 않는 처지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인간의 근본이 되는, 사람답게 사는 일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매일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사건들, 부모이기를 포기한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패륜들, 아내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부도덕한 사건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도덕성 회복이 가장 급한 일이다. 도덕성 회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간의 화목, 이웃간의 인화, 부부간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에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인간이 될 수 있다.

# 한국 여인의 표상

— 강정일당의 효행과 열부정신 —

정일당 강씨(1772-1832)는 1772년 10월 15일에 충북 제천군 근우면 신촌 집에서 아버지 강재수(姜在洙),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 2남 1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정일당의 할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두 여자 성인이 찾아와서 안고 있는 여자아이를 맡기며 ‘이 아이는 지극한 덕이 있다. 지금 너에게 맡기니 잘 기르라!’ 하였다. 그런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일당을 출생하였다.

정일당은 성격이 곧고 정결하였으며 단정하였고 좋고 언짢은 것을 얼굴에 쉽게 나타내지 않았다. 어릴 때에도 아이들과 장난을 잘 하지 않았고, 드나들 때에도 정숙하여 문지방을 밟는 일이 없었다.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여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웠고, 집안을 항상 깨끗이 치우고 심부름을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순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정일당의 외할아버지께서 너무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전에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는 우리 권씨 문중에 제일 가는 부인이라 하셨는데, 지금 너는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 하셨다.

어머니 안동 권씨가 강정일당에 대하여 말하기를 “천성이 단정하고 정결하며 총명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지성으로 섬겨서 아침 저녁으로 정성으로 예를 다했고, 옆에 앉아서는 항상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아서 길쌈하고 마름질하는 법이며 삶고 찜하고 나물 무치고 양념하는 일은 반드시 부모의 입에 맞게 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했으며 부모가 병환이 생기면 밤새도록 옷을 벗지않고 약 달이고 죽 끓이는 일은 반드시 맡아 하였다.

날마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집안 일을 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데,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였으나 힘들다고 투정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여자는 게으름을 피우고 놀기를 좋아해서는 안된다’고 늘 경계하였다. 일 없을 때에 단정히 앉았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앞에서 감히 상스러운 말과 너털웃음을 웃지 못했으니 자신의 몸을 엄격히 단속하여 남에게 존경을 받았다.

시집 보내는 날 딸에게 경계하시기를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시누이와 동서간에 화목하게 하여라. 그것이 이 어미의 소원이다.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운명이 정해 놓은 것인데, 가난한 선비의 아내

가 이런 뜻을 모르고 매양 가난한 것이 싫다는 생각만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 덕성과 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망을 몸소 가르친 친정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 가운데 키워졌다.

여덟살 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 옛 글에 여자는 잘못 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는 것과 ‘ 밤에 나갈 때는 반드시 촛불을 들어 밝혀야 한다.’ 는 말을 가르치니 정일당은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일이 없었다.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머니를 따라 바느질도 하고 길쌈도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잠을 자지 않으니 어머니가 ‘잠깐 쉬라.’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자고 싶지 않다’ 고 하여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케 해드렸다.

정일당의 나이 17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심히 슬퍼하다가 죽을 고비를 맞은 일이 있었다.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함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정일당(姜靜一堂)은 1791년, 19세 때에 여섯 살 연하인 윤광연(尹光演)과 결혼하였다.

남편 윤씨 가문은 학문을 높이 숭상한 명문가였으나 집안이 가난하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호:只一堂) 모두가 학문의 이치를 터득한 선비

계층의 부모였다. 때문에 남편은 조상으로부터 선비 신분을 받았으면서도 이렇다할 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선비 신분으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품팔이로 살아 갔다. 그러던 차에 강 정일당과 결혼하여 정일당에게 비로소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결혼식을 치루고도 가세가 어려워 남편에게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친정에서 지낸 후에야 결혼생활을 했다.

남편 윤광연은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질이 있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었다. 나이 20이 되면서부터 도학에 뜻이 있어 강제(剛齊)선생에게 배워 가난을 이기며 글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결혼 후에 남편을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한 정일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친구처럼 스승처럼 남편을 타일렀다. 그래서 남편을 안내하여 스승을 찾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 덕을 길러 나가도록 깊이 배려하였다.

정일당의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깨우쳤고 밖으로는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말년 즈음에는 당시 유림계에서 부러움을 사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일당 자신이 스스로 길쌈하고 바느질하며, 때로는 씨레질까지 하면서 어려운 가사를 책임진 채 남편을 떳떳한 인물로 세상에 내세우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정 일당의 남편 윤광연의 기록을 보면

“ 내 아내는 시를 가끔 지었는데 그것은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는 말이었다.

문장을 화려하게 쓴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의 몸을 닦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게 하는 일에 대하여 썼다.

항상 근면한 생활을 하였고 학문에 있어서는 정성스러움(誠)과 공경함(敬)을 위주로 하였다.

공부에 있어서는 언제고 이치를 깨우치려고 근원을 밝혔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권했다.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조목조목 이치를 따져 합리적이었으며 경서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 고 했다.

정일당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3년간 친정에서 생활할 때 시아버지가 사돈 집에 다니러 간 일이 있었다. 십여 일을 머물면서 며느리의 언행과 살림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여 “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라며 크게 좋아 하였다.

살림 틈틈이 경서를 연구하며 의리를 깊이 깨달았으며 젊은 나이에 중용의 미묘한 뜻과 깊은 풀이로 주자 사상을 깨우쳐 가정 주부로서의 경지를 뛰어넘어 일가를 이뤘다.

그러나 정일당에게는 자기의 일보다 남편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 정일당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었던 듯하다. 남편을

선비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은 온 몸을 던져 힘겨운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다.

가난한 시골선비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람이 사는 도리를 가르치고 선비로서 학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정일당 자신은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봉양과 조상들 제사를 지내는 데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자기 자신은 끼니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쟈상에는 늘 풍족한 제물들이 올려졌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 다소 빛나갔던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출타하여 다음 날에 들어오면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남편에게 큰절을 올리는 등 남편에게 결코, 헛점을 보이지 않아 남편도 정일당의 철저한 삶에 녹아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남편으로 하여금 부인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정일당의 결혼 생활은 처녀시절 친정집 보나도 훨씬 어려운 형편이었다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맏시숙의 가족들까지 거느렸던 대가족인 형편이었다

1793년 시아버지의 초상을 치른 후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되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되자 맏시숙 윤광국 씨 가족들이 남의 결방살이로 나갔다. 남편 윤광연도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상복을 입은 채로 충청도와 경상

도 지방까지 장삿길로 나섰으나 가난을 면할 길은 없었다.

그러한 가난을 빌미로 아내의 호소를 물리치고 동서남북으로 헤매면서 남편이 학문을 게을리하자 정일당은 눈물로 호소하였다.

“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의리를 버리고 돈벌이만 하는 것은 가난을 참고 배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바느질과 길쌈은 대강 할 줄 아오니 마땅히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여 죽은 잡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성현의 글을 읽으시고 살림에는 관심하지 마소서 ”

그래서 남편 윤광연은 감동하여 「사서삼경」을 공부하기 시작 하였다. 정일당은 바느질 가위를 들거나 자를 든 채 남편이 공부하는 옆에 앉아 글읽는 소리를 들으며, 글자의 음과 뜻을 풀이하기도 했고, 묻기도 하여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깨우쳤다. 정일당은 읽는 소리만도 그 뜻을 알았고 한 번 훑어보고도 깊은 뜻을 쉽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여 남편의 학문은 크게 발전하여 당대 선비로서의 위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이 사랑채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게으르다 싶으면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남편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루 한끼를 겨우 먹어야 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정일당은 남편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문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하기 위하여 때때로 쌀밥에 맛있는 국과 안주를 곁들여 술상까지 드렸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도 옳지 않은 불건을 받은 적이 없었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정일당이 항상 입버릇처럼 남편에게 이렇게 일렀다.

“ 착한 행실(善)이란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근원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利)은 모든 일을 어지럽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만약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언어 행실로 상대하면 그런 사람은 자연히 물러나게 됩니다.

제 잘못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륜(五倫)이란 것은 아버지는 의리로, 어머니는 자애로, 형은 우애로, 아우는 공경으로, 자식은 효도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몸은 온갖 일의 근원이 되나 예절(經)이 몸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서 사람이라 일컫게 됩니다.” 고 하였다.

정일당의 끊임 없는 학문에 대한 열정은 이웃 사람들조차 모르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우쳐 이루어졌다.

결혼 후 30세가 넘고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여 많은 양의 글을 썼으나 그의 남편조차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아주 적은 양의 시를 썼다’고 했을 정도였다. 시를 쓴 것 외에도 집안 족보의 서문이나 발문을 쓰는가 하면 묘비명과 죽은 후에 그 평생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는 글(行狀)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모두가 남편의 이름으로 이루어 졌다. 친정 집안 강원희 씨의 기록에 의하면 강 정일당은

“ 학문의 대가들도 읽기 어렵다는 중국의 열세 가지 경서(십삼경)를 모두 읽고 깊이 연구하여 혼자서 중얼중얼 외우곤 하였다. 또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보아서 고금의 역사도 손바닥 들여다 보는 것 같이 알았다.

글씨 쓰기를 좋아하여 힘차고 반듯하게 써 그 시할아버지 정심제(正心齋)의 필법을 이어받았고, 글씨로 대가를 이룬 사람들의 필체를 두루 쓸 수 있어 대가를 이뤘다.” 고 했다.

정일당 부부는 누구보다도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학문의 길을 걸었지만 출세와 권력을 잡기 위한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늘 아름답고 진지했다. 정일당도 그런 자기 부부간의 삶이 한없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여 오랫동안 간직할 생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기록하여 여러 권의 책(問答言行錄)이 되었다.

이런 정일당 부부의 삶은 지극히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주변 사람들 조차 부러워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정일당의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고 병이 나도 약 한 첩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 3 일 동안이나 혼절한 상태로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기록이 그를 부러워 하는 누군가에 의하여 사라지고 몇 편만 남아 전하게 되었다.

“ 정일당 강씨는 타고난 자태가 높고 깨끗하여 행실이 대단히 순수하였고, 하늘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의 길과 패도의 간사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 착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가운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옳지 않다는 식의 고집적인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

정일당은 마치 찬란한 봉황새의 광채가 있으면서도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감추었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숨겨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정일당은 남편에게도 말 대신에 글로서 표현하기도 했다.

말 대신에 글을 이용한 것은 말은 잠깐 사이에 사라지지만 글은 받는 이가 읽어 그 감동을 가슴 속에 오래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고, 자칫 잘못하여 감정이 섞이기 쉬운 말을 마음 속에서 걸러 글로서 전달함으로써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 감정을 편안케 가다듬고 정리하여 자기의 뜻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문장입니다.

훌륭한 문장을 쓰는 것도 선비로서 갖춰야 하는 큰 덕목입니다. 육경을 연구하시는 여가에 때때로 문장에 유의하소서 ”

“바라옵건대 손님을 접대하고 꼭 해야할 일 이외에는 글 읽는 데만 정성을 다하세요. 첩도 바느질 하고 음식장만하는 틈이나 밤에 일을 마친 뒤에는 책을 보고 이치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부터 「사서(四書)」를 읽기 시작하였으나 「맹

자」의 하삼편은 아직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겨울에는 당신을 따라 「주역」을 읽으려 했는데 손님이 만약, 오래 계시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간에 김세마헌(金洗馬憲) 씨에게 편지하여 「시경」과 「서경」의 「대전(大典)」을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느질하고 쓰레질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옛 경서(經書)를 보고 이치를 깨닫고 그 행동을 본 받아서 옛 성현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부이신 당신께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도를 찾기 위하여 스승을 찾아가고 공부하는 친구도 사귀어서 어떤 것은 토론하고 어떤 것은 깊이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진 마음과 의로운 생각으로 올바르게 행한다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성현이라고 하여 당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당신께서는 날마다 덕을 쌓아 이 땅에 성현이 되기로 결심하소서!”

또 정일당이 죽기 2년 전에 남편이 스승에게서 받아 온 글 「비례물시청언동(非禮勿視聽言動)」을 받아 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듣자오니 이번에 선생님께 가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 (非禮勿視聽言動)」 고 쓰신 글을 받아 오셔서 판자에 새기려 하신다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공자께서 제자이신 안자(顔子)의 묻는 말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안자는 평생을 두고 이것을 지키기에 힘써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할아버님께서도 일찍이 이 글을 써서 스스로 지키기에 힘쓰셨고, 또 자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앞드려 원하오니, 당신께서는 공자와 안자의 주고 받은 정중한 말씀과 할아버님의 높은 뜻과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받으셔서 밤낮을 헤아리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고 지켜 주소서!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예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라는 것은 내가 좋아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예이고 어떤 것이 예가 아님을 안 뒤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끊어버리고 한결 같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께서도 이를 우러러 힘쓰기를 바라면서 삼가 그칩니다.”

또 그의 편지 중에는 아주 짧은 것들도 있었다.

“주역에서 ‘음식을 알맞게 먹으라.’ 했습니다. 술은 음식중에서 가장 큰 음식이니 당신은 술을 알맞게 자시고 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경에 ‘부드러운 말로 남을 공손히 대하는 것은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고 하였습니다.”

“서경에 ‘사람의 마음 속을 안다는 것은 요·순(堯舜)도 어렵게 여겼다.’ 했습니다.

“내게 덕이 있으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손해가 있으리요. 그러니 당신께서는 덕을 쌓기에 힘쓰셔서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뿐이요.”

“아버이를 섬기는 데 처자에게 끌리는 일이 있으면 참 효도를 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데 그 처자에게 마음이 끌리면 충성을 다 할 수 없고, 스승을 섬기는 데 마음이 처자에 끌리면 학문을 할 수 없으니.....”

“‘불의한 짓을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일’ 이라고 공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 당신은 남을 꾸짖는 데 ‘소리를 너무 크게 내시고 얼 굴빛을 무섭게 내신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수양하는 데 크게 어긋나는 일이니 경계하소서 ! ”

이러한 정일당의 훌륭한 노력에 의하여 남편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여 명성이 차츰 높아짐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훌륭한 제자를 길러 내는 스승이 되었다. 강 정일당은 훌륭한 아내이면서 훌륭한 문인이었다. 그러나 정일당의 글은 문학가가 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 가는 데 필요해서 쓴 글이었다. 그가 남긴 40편 정도의 글 중에서 시어머니와의 화답시 「경차존고 지일당운(敬次尊姑 只一堂韻)」을 위시하여 「제석 감음(除夕減吟)」 「야좌(夜坐)」 「청추선(聽秋蟬)」 그리고 「탄원(坦園)」 등이 서정시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오늘과 같은 서정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훈적이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가난에 쪼들리면서 어렵게 살아 온 시집살이, 친부모 같이 30여년 공경하고 모셔오던 시어머니 지일당(只一堂)마저 돌아가신 허전함 가운데 인생 50고개를 넘어가는 허탈함이 교차되는 선달 그믐! 감상에 젖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無僞虛送好光陰 일없이 좋은 세월 다 보냈어라.  
 五十一年明日是 내일은 신 한 살로  
 中賓悲觀將何益 서러운들 어쩔라고  
 且向餘生修厥己 여생을 도닥아 가며 살아가려  
 하외다.

— 除夕感吟 선달 그믐에 —

夜久羣動息 밤은 길고 깊어 고요한데  
 庭空皓月明 빈 뜰엔 달빛 또한 밝았네  
 方寸淸如洗 마음은 씻은 듯이 맑았고  
 豁然見性情 밝은 맘 환한 모습 보는 듯 하네.

— 夜坐 밤중에 홀로 앉아 —

萬木迎秋氣 온 나무들 가을 오니  
 蟬聲亂夕陽 석양엔 매미소리 어지럽고  
 沈吟感物性 만물 또한 느낌이 새롭구나  
 林下獨彷徨 숲 속에 홀로 마음 잡지 못하네.

— 聽秋蟬 매미소리를 들으며 —

정일당에게 있어서 시 한 편을 쓰는 것은 가난하고 힘  
 든 세상을 살아 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도 모른다. 50

이 넘어가는 나이에 매미소리도 새롭게 들리고 달빛 또한 과거 그대로의 달빛만은 아니었으리라. 한잎 두잎 떨어지는 낙엽을 밟노라면 지나온 세월 찬바람 스산한데 늙어진 감회가 어찌 젊었을 때의 느낌과 같을 것인가. 정일당의 글은 운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문도 여러 편이 있으나 여기 「탄원기(坦園記)」 한 편을 소개한다.

“지금 한창 좋은 보배를 수레에 싣고 조심조심 길을 떠나서 인의(仁義)의 경지로 막 달려가는 참이다. 그리하여 그 돌무더기며 무지렁이 나무며 좁은 것이며 높은 것이며 우뚝한 것이며 혹은 깊숙한 것이며 혹은 비뚤어진 것이며 어디를 가도 모두가 탄탄한 길이다.

돌을 쌓아 올리면 산이 되고, 샘을 끌어 올리면 못이 되고, 꽃도 심고 과일나무에 접도 붙이고, 나물도 심고 약초도 가꾸면 심심찮은 가운데 살림에 보탬도 되고, 거문고, 술, 그림, 글씨를 가지고 산을 벗하여 들판을 거니는 마음으로 노닐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 벼슬을 하찮게 생각하고 녹을 우습게 여길만한 것들로서 탄원 주인의 참 즐거움이다.”

이 글에서 보듯이 강 정일당은 문장력이 뛰어나고 은유와 감정이 풍부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마음은 늘 기쁨으로 만족한 가운데 살았었다. 그러나 강 정일당에게

항상 편한 마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정일당은 5남 4녀를 낳았지만 어머니가 잘먹지 못하여 젖이 부족한 상태에 가난하여 치료 한 번 해보지 못한 상태로 아홉 남매 중 단 한 사람도 키우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태어난 지 반 년 만에 죽은 막내 딸의 죽음은 정일당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 얼굴은 단정하게 생겼고 안으로 몹시 영리하여 난지 3.4개월에 벌써 부모의 얼굴을 알아서 울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당장 울음을 그치고 가까이 가면 방긋방긋 웃다가 멀리가면 눈길을 돌려 보곤 하였다.

이것은 주자가 말씀하신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라도 아버지를 보면 웃는다.’ 는 것이 아니냐?

.....

아! 슬프다. 어떤 생명이고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나면 죽는 것이 하늘이 내린 이치라고 하나, 양육을 잘못하여 목숨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것도 천명이라 할 것인가? 이 애와 같이 어려서 죽는 것도 천명을 그렇게 타고 났다하여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나무래지 않아도 종단 말인가? 너무 슬프고 슬퍼서 능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문(誌文)을 만들어 묻었으니 너무 정에 ‘지나친 일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제발 사람들은 이 슬픈 사정을 알고 받을 갈아 이 무덤을 파헤치지 마소서 ! ”

태어나서 한 톨도 살지 못하고 죽어간 막내 딸을 위시하여 아홉 자녀 중 한 사람도 키워내지 못한 어머니의 아픈 가슴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런지 정일당의 글 중에 죽은 자를 위한 글이 10 여 편에 이른다. 이웃에 사는 제자의 어머니를 위해 쓴 제문을 위시하여 효자로 이름난 제자의 죽음, 형수, 친정 어머니, 친구들에게 써준 추도문, 살아 가면서의 행적을 기록한 행장, 묘비명들을 썼는데 그 어느 것에도 정일당의 다감한 정이 담뱃 담겨 있다.

「정일당 유고」 집에서 정일당을 평한 권우인(權愚仁)의 글을 보면

“ 비록 부인이 지은 것이라 하나 여자의 기상이라고는 전혀 없고 산 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뜻이 있어서 학문을 연구하는 글과 같다. 다른 부인들처럼 자기의 회포나 쓰고 꽃과 나비나 읊조리는 글과는 비유할 바가 아니다. 많은 글을 읽어서 자칫 자기의 뜻을 세웠다고 자칭하는 선비라도 아마 자기를 반성하며 정성을 다 하는 학문이라도 이만큼 진지한 삶을 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 우리나라에 신사임당(申師任堂)과 윤지당(允摯堂), 두 부인의 덕행이 있었는데 사임당은 시를 잘하고 윤지당은 문을 잘해서 이름난 분들이다.

정일당은 시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읽기를 좋아하였고 의심 날 만 한 곳을 밝혀 많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 사임당과 윤지당은 시문을 잘했던 데 비해 정일당은 시문 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남편이 친척되는 전 대사간 윤제홍을 찾아가 아내 정일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일당의 문장은 화려하거나 아로새겨 만든 문장이 아니고 모두가 몸을 닦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게 하는 글로서 읽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의 학문은 정성(誠)과 공경함(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가 경서의 뜻에 맞는 것이다.”

정일당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추도문을 보면 정일당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가를 쉽게 알 수 있다.

“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근심하고 같이 슬퍼하며 가난에 시달려 고생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울음이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 없구려 !

당신은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후하고, 지극히 정성스럽고, 지극히 정직하여, 스승도 되고, 아내도 되었으니, 존경 받아야 하고, 크게 대우받을 사람이었오. 당신은 보통 부인들로서는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덕망이 높은 군자라도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오. ”

또 다른 사람의 애도문 중에는

“ 아 ! 세상을 떠나는 정일당이시여 ! 당신은 곧고 맑고 고요하고, 순일했구료. 얼음 같이 맑고 옥 같이 윤택한 성품으로서 겉에 나타남이 속 마음과 같았도다. 당신이 이룩한 학문 또한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었도다.

아! 기어이 떠나시는 당신이시여 ! 당신은 어질고 또한 효성이 가득했으니 시아버지는 현부라 하였고, 오솔길을 버리고 큰 길로 인도했으니 남편은 어진 친구라 했도다.”

대 정치가나 학자의 아내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선비의 아내였던 그가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도 잊고 성실하게 살아 아무런 배움이 없는 남편을 당시의 덕망 있는 선비로 키워낸 이 땅의 아내 강 정일당 ! 세상 사람들이 고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덕망과 인품으로 하지 못했지만 강정일당 고부간엔 그런 어색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간에 글을 주고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

주고 받은 많은 시들 중 한편의 시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봄이오면 꽃은 활짝 피지만  
세월이 가면 사람은 점점 늙어만 가네  
그렇다고 한탄만 하면 어쩐단 말인가  
착한 일 하나라도 더 하는 길 밖에 없네

하고 시어머니인 지일당(只一堂)께서 한숨섞인 시 한수를 읊고 나니 며느리 강정일당은 이렇게 읊어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렸다.

배우는 입장에서 아랫 사람들은 윤리부터 힘써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편안히 모셔야 합니다.  
곧장 이대로 지켜 나가면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길입니다.

회갑 한 달을 앞두고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 정일당 앞에 쓴 남편의 추도문은 눈물 없이 읽기 어렵다.

“ 아, 오늘은 바로 당신의 회갑날이구료 ! 당신이 아직 살아 있다면 머리가 허영계 센 두 늙은이가 마주 앉아서 비록 조밥에 콩나물국이나마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어

가며 그 즐거움이 아주 깊었을 텐데 ....

어째서 오늘은 나만이 있고 당신은 보이지 않나요! 흰 천 장막에는 싸늘한 바람만 감돌고 젖상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구려! 당신이 쓰다만 글이며 글씨 쓴 종이 쪽지 책상 속에 흩어져 있어도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오. 당신 손때가 묻은 것들이니 어느 한가진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이 없구려! 생각할 수록 기가 막히는 구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 온 지도 벌써 40여년이 되었구려! 그동안 근심하고 슬퍼하며 가난에 시달려 고생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울음이 터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구려!

당신이 시집 온 뒤에 부모님들이 좋아하셨고 오직, 당신을 의지하며 살았오.

집안에 한톨의 곡식도 저축할 수가 없었는데 제삿날에는 어김없이 제사를 올릴 수가 있었으니 어찌된 일리오? 주머니에는 동전 한푼 없었으나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맘껏 즐기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당신은 신기한 사람이었오.

무슨 일이던지 말한 그대로 실천하여 기일을 어긴 일이 없었으며, 어떤 것이든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여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냉정히 거절하던 당신을 지금 떠 올리고 있오. 남의 급한 사정을 그렇게도 잘 보아주던 당신. 자기 몸 단속은 무섭게 하면서도 남은 늘 너그러이 보아주던 당신! 아홉 남매를 낳았

어도 하나도 키우지 못한 아픔과 설움이 있으면서도 원망하나 없었고 밤낮 사흘 동안이나 굶주렸어도 조금도 언짢은 빛이 없던 당신 ! ”

“ 당신의 말 소리는 문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당신의 발자취는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소. 음식은 늘 정갈하고 맛있었오. 당신의 바느질은 참으로 얹전하엿오. 이런 것들이 어찌 타고나는 것만으로 되겠오. 당신이 늘 책을 가까이 하시니 배우고 익힌 것이지요.

부인이 남편을 섬길 때에 서로 사랑하기는 쉽지만 공경하기는 어렵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은 것인 데 당신은 늘 그렇게 하엿오. 당신은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했오.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을 보면 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잘 하도록 권하고 가르쳐 주엿고,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책망까지 해가며 올바르게 가르쳐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람 노릇을 하게 했으니 참으로 장하시오. 내가 비록 용렬하여 그 말을 따르지 못했으나 당신의 가르침을 생의 끝날까지 지켜 나갈 것이오. 사실 당신과 나는 부부 사이라고는 하나 엄하기가 높은 스승과 같아, 나는 항상 조심 조심하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오. 그러면서도 매양 당신과 같이 앉으면 마치 하늘의 밝은 빛을 대한 것 같고 당신과 말을 할 때는 아늑하고 푸근

하기만 했소 ! ”

살아서는 가난에 쪼들리고 병들어서는 제대로 휴식조차 할수 없 수 없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죽은 후에도 자녀도 하나 없었고 염습할 옷가지 하나 없었다. 그 지독한 가난 가운데 남편만 홀로 남기고 떠났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유고집을 만들었다.

정일당이 죽은지 1년이 지난 남편 윤광연의 생일날에 쓴 추도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다.

아! 슬프도다. 당신이 돌아간 지 얼마되지 않아서 가난은 날로 심하여 손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종들까지도 나를 버리고 떠났는 데 나의 병은 날로 더 악화될 뿐이오.

지금은 나 혼자 쓸쓸하게 남아서 헌 신짚, 헌 옷으로 덮고 누워있을 뿐이오 배고프고 춥지만 당신이 없는 쓸쓸함에 어찌 비길 수가 있겠오. 지금 동산 가운데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안에서 나 혼자 앉았다 누웠다 하고 있으니 무슨 신세가 이렇게 외롭고 처량하단 말이오!

나는 이미 부모님 교훈도 따르지 못했고 선생님 가르침도 받들지 못했오. 그리고 어진 아내의 경계도 따르지 못했오. 그러니 내 마음이 어찌 하룬들 편할 수가 있겠오. 다만 굶어서라도 빨리 죽기만 바랄 뿐이오. 다만 자식 하

나 두지 못해서 조상님들께 죄를 지었다 생각하니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고 한탄스러울 뿐이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지금에 와서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세월은 흘러 벌써 1년이 되어 제청도 치우게 되었다오. 이후부터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소연 조차 할 곳이 없게 되었오. 그러니 술 한잔 부어 놓는 자리에 눈물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지는 구료. 부디 흠향하옵소서! 아 슬프도다!

정일당은 부모에게는 지극한 효녀 효부였고,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격한 스승이기도 했다.

그러한 정일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었던 남편이 있어 그 덕행을 책으로 펴냈기에 그나마 오늘 우리가 정일당의 삶을 배우게 되었다.

조선시대 18-9세기 이 땅의 위대한 아내, 오늘날 우리러 모셔야 할 우리들의 어머니 상(像)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아들들이 마땅히 우리들의 어머니로 모셔 마땅하다.

올바른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뿐만 아니라 배움이 없는 남편에게 학문을 가르쳐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사람을 만드는 일은 위대한 스승의 역할이었다.

뿐만 아니라, 끊임 없이 배우고 익히는 태도며 이웃간의 화목, 그 정숙함,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지독한 봉

건사회에서 양반집 아낙으로 굶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삶의 적극성, 고부간의 갈등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으리만치 단정했던 완벽한 인간관계,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강정일당이 이 땅의 우리들의 큰 어른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우리들의 어머니가 향토유적으로서 명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강정일당 동상 건립과 함께 시비를 성남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 세워 성남시민의 표상이 되게 하였으면 한다.

강정일당이 죽은 지 4년째 되던 해 홍직필(洪直弼)이 묘비명에 이렇게 새겼다.

“ 아! 부인이시어! 양반집 따님으로 거룩한 덕을 타고 나서 인의충신(仁義忠信)을 구비하셨도다.

시와 예를 매우 좋아하여 모든 예를 그대로 지키셨네. 학식과 덕행이 뛰어나고 모든 행실이 올바르게 하시니 양반집 부인 만이 아니라 학문을 좋아하여 도를 좇는 것은 하늘이 내신 분이었네.

하늘이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이치를 환하게 깨달았네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 남편을 깨워 공부하게 하였고,

자나깨나 사모한 분은 옛날 신지(辛摯·학문 익히기를 쉬지 않았어도 세상을 떠난 뒤에야 끝냈다는) 였네

청계(淸溪)는 맑고 깨끗하네. 둔산(遁山)은 겹겹이 에워싸서 산소 자리 또한 좋으니, 여사는 여기 편히 쉬도다. 부인의 거룩한 덕을 후세에 알리노니,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역사 쓰는 사람의 자료가 될 것이니라.”

한춘섭 『여류문사 강정일당』 (1992년판·성남문화원)

## 영원한 한국의 어머니, 강 정일당

성남시는 도시 형성이 그리 오래지 않다.

사람으로 말하면 겨우 청소년기를 벗어나려는 정도의 신생 도시로서 생활여건상 안정성이 부족한 입장이다.

더구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고 인공도시로서 여러 지방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여건으로 몰려들어 비슷한 비율로 같은 생활권을 이루었다.

때문에 성남은 시민들이 애향심이 없었다. 그래서 성남 초창기에 성남시청 주관으로 '고향심기 운동'을 펼치기 까지 했다. 모두가 떠돌이 시민이기 때문에 도시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한 도시로 발전하였다.

성남에서 토박이 주민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성남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문화도 없었고 뚜렷한 지방색도 찾을 수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모든 문화 행사가 서울에 흡수되거나 수원이나 광주에 연결되어 빛을 볼 수 없었다. 문화뿐만 아니라 상권이나, 직장까지도 서울에 포함되어 성남은 소위 말하는 '베드타운' 이었다.

때문에 시민들은 상당히 방황하는 상태였다. 성남이라는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유산이 없는 데다가 각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술집과 여인숙과 범죄가 많았고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한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다.

그때에 성남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성남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기 위하여는 성남에서 문화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문인협회도 만들고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등등 갖가지 세력들이 모여 문화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활동이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조건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성남의 문화적 공간이 없다보니 전시회는 주로 다방에서 하거나 은행들의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정도였고, 공연할 장소가 없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정도였다. 때문에 관중들을 모두 서울로 빼앗기는 형편이었다.

시민회관이 시청내에 있음으로 사용자들에게나 관객들에게 문턱이 높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열린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탁 터진 공원도 생겼고 열린마당에 야외공연장까지 건설되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고급 시설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고급 백화점마다 대 시민 서비스 공간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등장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남의 역사는 병자호란을 중심한 남한산성 역사 밖에 없었다. 그나마 시민들의 인식에는 남한산성의 역사는 패배의 역사, 치욕의 역사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나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민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물론, 병자호란 전체로 보면 진 싸움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남한산성 싸움으로 보면 크게 이긴 싸움이였다. 군사 1만명으로서 청나라 군사 13만 대군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항전 45일 동안 청나라 군사들이 결코 산성내에 한 발자욱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100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나라 실력으로는 남한산성을 함락시킬 자신이 없었다. 때문에 청태종은 모든 보급로를 끊어 인조임금 자신이 성문을 열고 나와 스스로 항복하도록 종용했고, 싸움이 끝난 후 전쟁 중에 파괴된 남한산을 일체 고치지 못하도록 문서에 명문화시켰다.

온갖 크고 작은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청태종에게는 남한산성 싸움에서 겉으로는 이겼지만 내용면에서는 크게 진 싸움이었고 접전 때마다 늘 쫓겼던 치욕적인 아픔을 안겨준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패배로만 인

식되어서 시민들 스스로 움츠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996년 남한산성에 대한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7년 삼학사에 대한 연구발표를 개최함으로써 패배의 역사에서 항전의 역사로, 패배한 부끄러운 땅에서 호국의 성지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효도정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강정일당이나 둔촌이 집에 대하여 알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안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만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행이란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는 식으로 무관심 일색이었다. 그러나 둔촌이집 선생에 대한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나 「둔촌문학상 제정」, 「강정일당 기념, 성남시민 글짓기 대회」 「강정일당 으뜸 시어머니상」과 「으뜸 며느리상」 시상식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성남시민들의 행사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까지 되었다.

지금은 그들이 왜, 향토문화인물이 되었는지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고 서서히 시민의 문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강정일당이 살던 시대는 완전한 봉건주의 시대였다.

그때는 유교가 지배했던 시대로 사회 전체가 형식적인 이론 예절에 묶여 매우 부자연스러웠던 시대였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으로 시부모님께 순종치 않으면 내쫓는다는 불순부고(不順舅姑)를 비롯하

여, 자식이 없으면 내쫓는 무자식(無子息), 음행(淫行), 질투(嫉妬). 심한 병에 걸리면 내쫓았던 악질(惡疾), 남의 말에 오르내리는 구설(口舌), 남의 물건을 훔치적거리는 도절(盜竊) 등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니 하여 여성들에 대한 각종 규제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규제들이 지키기 싫어 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웠던 것이지, 그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윤리 도덕이었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 하여 부부간에 사랑함에도 남편 우위라는 의식이 있어 오늘날에도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훈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지만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부인이 남편을 가르치고 훈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강 정일당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남편 자신조차 모르게 가르치고 깨우쳐 당대에 훌륭한 선비로 서게 했다.

정일당은 딸이나 며느리로서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게 참으로 효성을 다한 훌륭한 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열부정신(烈婦精神)을 크게 본받아야 한다. 오늘날 핵가족 상태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로 살기 때문에 가족간의 유대와 화목이 더 어려워진 상태다. 가족간에 따로 떨어

져 사는 상태에서 아내의 역할은 더 커지고 중요해 졌다. 그 역할을 소홀히 했을 때 가족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원수지간이 되기까지 한다.

오늘날의 아내들이 가족간의 역할을 소홀히 하므로써 결혼전에 효성스러웠던 남편을 천하에 없는 불효자로 만들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강정일당의 남편 윤광연(尹光演)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아내로 인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고 당대에 일컫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강 정일당은 일생동안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시와 문장이 뛰어나고 붓글씨에까지 일가견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있는 선비들도 감히 쉽게 읽지 못하는 어려운 경전들도 쉽게 읽었고 그것을 또 실생활에 그대로 실천하는, 학문과 생활이 일치하는 실천도덕가였다. 강정일당이 다른 집 마나님처럼 안방마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책임까지 졌기 때문에 집안 일에서 부터 들 일에 이르기까지, 내 집 일에서 부터 남의 집 샅바느질까지 쉴 새가 없었다.

강정일당이 위대한 것은 몇줄의 글을 잘 썼다거나 어려운 학문을 했다고 해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의 학문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한번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학문보다 아내로서의 도리나 며느리로서의 행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실천중심의 도덕이었다. 때문에 그가 언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운 교훈은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있는 것도 없는 것같이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었고, 이웃들과 화합할 수 있었다.

즉 그는 전인적(全人的)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때문에 성남시가 참 어머니의 모습이며, 참 아내, 참 며느리의 표상으로 강정일당을 당당히 내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정일당의 삶을, 함께 살아 가는 성남 시민의 삶의 척도로 제시하며, 그 훌륭한 삶을 본 받아 밝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가꾸려는 것이다.

## 강정일당의 생애

1772. (임진·壬辰) 음 10월 15일 충북 제천군 근우면 신촌에서 아버지 강재수(姜在洙)·어머니 안동 권씨의 2남 1녀 중 외동 딸로 태어남.

1778. (13세) 아버지 강재수 사망

1791. (19세) 여섯 살 연하인 윤광연(尹光演)과 결혼. 형편이 어려워 결혼 후 3년 간 친정에서 기거

1793. (21세) 시아버지 윤동엽(尹東燁) 사망

1794. (22세) 시댁으로 거처를 옮겨 살림 시작

1795. (23세) 첫 아들 출생

1797. (25세)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시문으로 화답, 시문 창작에 관심이 크기 시작

1798. (26세)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

1802. (30세) 문장이 매우 훌륭함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의 일대기(行狀)를 엮어 냄

1809. (37세) 시어머니 천안 쏘씨 (호 只一堂) 사망
1814. (43세) 아홉째 딸 출생, 아홉 자녀가 모두 첫돌을 넘기지 못하고 또 6개월 여 만에 아홉째 딸까지 사망
1815. (44세) 친정어머니 일대기(行狀)을 엮음
1822. (51세) 몸이 몹시 허약하여 3일동안 혼절하였다가 회복
1832. (61세) 환갑 한달을 앞둔 9월 14일(음) 서울 약현(현재의 중림동)에서 사망, 큰 시동생의 장자 윤전규(尹田圭)를 양자로 입적
1833. (사후 1년) 남편 윤광연이 아내의 문필 서첩 출간을 시작함
1836. (사후 4년) 「정일당 유고」(靜一堂 遺稿) 한문 초간본이 윤광연의 스승 송치규 선생에 의해 발간됨
1926. (사후 94년) 「정일당 유고」(靜一堂 遺稿) 중간본이 김석곤(金皙坤)에 의하여 다시 발간됨
1982. (사후 150년) 국역본 「정일당 유고집」(靜一堂 遺稿集)이 강주진(姜周鎭) 박사에 의해 발간 됨

1983. (사후 151년) 성남문화원 조명천(趙命天) 초대 원장이 자료를 수집
1986. (사후 154년) 성남 문화원 발의로 정일당 묘소와 유고가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받음
1989. (사후 157년) 후손 윤부(尹溥)에 의해 정일당 사당이 10평 정도 크기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662번지에 건립 됨
1991. (사후 159년)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한춘섭(韓春燮) 선생에 의해 「여류문사 강정일당」 논문이 발표됨
1992. (사후 160년) 「여류문인 姜靜·堂」 100쪽 발행(성남문화원), 제 19회 성남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제 1회 「강 정일당 고부상」(姜靜·堂 姑婦賞)을 제정, 으뜸 시어머니와 으뜸 며느리 각 1명씩 시상
1996. (사후 164년) 「여류문인 姜靜·堂」 100쪽 재판 발행 (성남문화원)
1997. (사후 165년) 10월 25일 성남문화원 주체로 개최 ‘삼학사·정일당 모시오’ 축제가 가장행렬

식으로 열려 삼학사 행렬에 이어 어가  
승군행렬, 강정일당 행렬로 이루어졌고,  
'강정일당 상' 시상도 이루어졌다.

- 강정일당의 훌륭한 효행과 덕행, 열부  
정신 문학 정신을 현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인 현장송 선생이 한글로  
쉽게 풀어 “「향토문화인물」 청소년  
교재 「**한국여인의 표상, 여류 문인 강  
정일당**」”이 성남문화원에 의하여 발간

「향토 문화 인물」 청소년 교재

# 한국여인의 표상

여류문인강 정일당

---

1997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오 세 순

저 자 : 한 춘 섭

편집·교열 : 현 장 송

편집인 : 이 완 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

463-0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 (0342) 751-1020, 750-2348

FAX (0342) 709-5246